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점심과 오후찬양예배는 '가정의 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다음 주일 2부 낮예배 대표기도는 김윤식 장로님입니다.
3. '7월 월삭새벽기도회'는 내일(7/1)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가집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다음 주일은 1부2부 통합예배로 오전 11시에 '필리핀 단기선교팀 파송예배'로 드립니다. 점심과 오후찬양예배도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기존 매월 첫째 주에 가졌던 성찬식은 하반기인 7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인 '가정의 주일'에 가지겠습니다.
7. <하늘문의 만나> 7월호가 출간되어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셔서 묵상용 혹은 전도용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날짜 담당	6월 30일	7월 7일	7월 14일	7월 21일
예배기도(2부)	유중열 장로	김윤식 장로	윤형근 장로	박성근 장로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가정의 주일	필리핀 단기선교팀 파송예배	이은설 권사 가정	탁금란 집사 가정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
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티(함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윤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17번(시 29:1-11) 다같이
*경배찬송	27장(통 27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311장(통 185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유절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엡 4:20-24 인도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지금 누구와 동행합니까?’ 허영진 목사
기도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찬양예배는 ‘가정의 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마 18:15-20 ‘두 세 사람이 있는 곳에’(2)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하루문인만> 말씀묵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지혜 있는 자는

계절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낮이면 때 이른 무더위로 6월을 타 했지만, 어느 듯 6월도 끝입니다. 곧 내일이면 7월이 시작됩니다. 매년 이맘 때면 시작하는 여름 장마도 6월의 끝자락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장마기간 동안에는 해야 할 일들이 미뤄지거나 야외활동도 당분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폭염이 엄습하는 한 여름을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일까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도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엡 5:15~16)고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시편에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에게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하여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인 지도 모릅니다. 그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게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마 6:33)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곤 동일하게 말합니다. 다만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은 넉넉하니 해볼 것 다해보고, 즐길 것 다 즐겨보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뿐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단지 시간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내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여유를 부리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닙니다. 비겁한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만, 실패의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어리석음입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을 아낄 줄 모릅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깁니다. 6월 끝자락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면 살아야 합니다.

Written by 허영진